

# 풍수사상으로 살펴본 고령지역의 풍수지리학적 특성

성 동 환\*

## ■ 차례 ■

1. 머리말
2. 고령지역 陽基풍수의 해석
3. 고령지역 陰宅풍수의 해석
4. 맺음말

### 【국문초록】

풍수사상은 한국인의 공간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고을과 마을의 입지와 주택의 배치, 사찰, 향교, 서원, 무덤 등의 입지 선정이나 경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은 고령군 지역의 읍기, 마을, 향교, 서원, 사찰 등의 양택과 고령지역의 음택을 선정하여 풍수지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고령 邑基는 水口가 虛한 단점이 있으나 산과 물의 짜임새가 잘 이루어져 있어 지리적인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명당이며, 현재에는 소멸했으나 과거 읍기의 하천가에 조성되어 있던 赤林은 청룡줄기가 짧은 것을 보완해주고 홍수의 피해를 막아주던 風水裨補의 역할을 하던 숲이었다.

고령지역 마을 명당의 풍수지리학적 특징을 살피기 위해 개실마을, 송림리마을, 별지리마을 등을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 해석하였으며, 종교적 장소성이 잘 부각되는 곳에 입지한 반룡사와 합가리사지를 사례로 풍수지리학적인 해석을 하였다. 고령지역의 음택풍수는 풍수사상의 이론체계인 龍穴砂水를 중심으로 金沔墓, 高靈申氏始祖墓, 朴持墓를 사례로 그 특징을 해석하였다. 이 논문은 고령지역의 양택과 음택 중 한정된 사례를 분석한 기초조사이므로 고령지역의 풍수지리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는 데는 많은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풍수지리·관광학과 교수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고령, 풍수, 陽宅, 陰宅

## 1. 머리말

풍수사상은 한국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고 또 오랜 세월동안 공간적으로 투영되어왔다. 옛 한국의 경관을 이해하는 데 풍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면서 지리학, 건축학, 조경학 분야에서 풍수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척되었다. 하지만 풍수사상은 여전히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풍수사상을 학문적인 재해석을 통해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왕조시대 실용기술학의 건강한 측면을 제대로 계승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풍수인식은 말할 것도 없고, 풍수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풍수사상의 정의와 의미, 그 쓰임새에 대해 각기 다른 지향과 의견을 갖고 있다.

풍수 연구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지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풍수의 본질적인 측면, 연구 주제 및 적용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이런 견해차를 줄이고 풍수사상을 제대로 재해석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풍수의 본질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내고, 각 지역의 풍수지리적인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그 성과물을 끊임없이 축적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풍수가 갖는 현대적인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현대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명당이 갖

는 현대적인 의미, 명당을 형성하는 산의 조건이 갖는 생태적인 의미, 이상적인 풍수의 물길 흐름, 주변 환경이 갖는 특성과 의미를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부여하는 풍수 형국론의 특징 등은 적극적인 새로운 해석과 현대적인 조명이 필요하다.<sup>1)</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고령군 지역의 풍수지리학적인 특징을 살피기 위하여 읍기, 마을, 향교, 서원, 사찰, 음택 중 특징적인 곳을 선별하여 풍수지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 2. 고령지역 陽基풍수의 해석

### 1) 고령의 읍기와 고령향교의 풍수지리학적 해석

#### (1) 高靈邑基의 풍수지리학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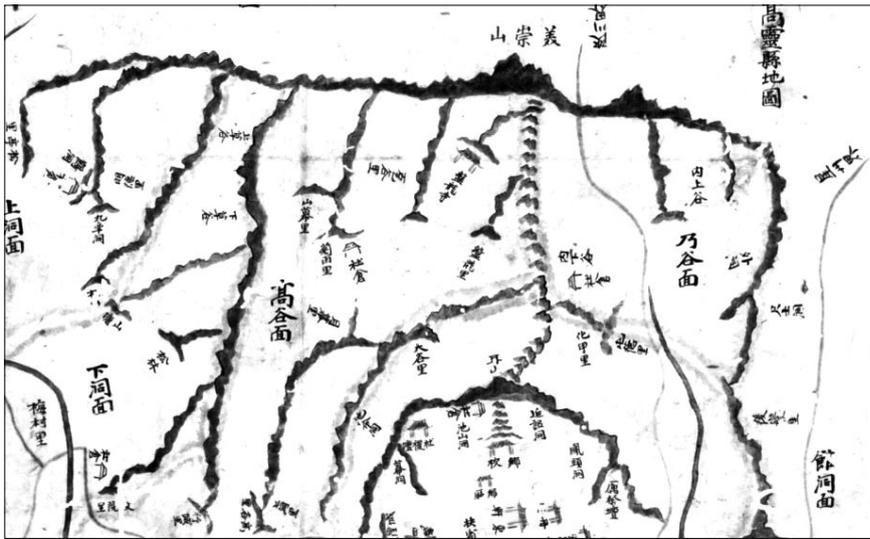
풍수에서 좋은 땅을 이루는 중심은 무엇보다도 산이다. 산에서부터 명당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산은 명당의 뿌리이고, 명당은 산이 맺은 꽃이요, 열매이다.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산이 아니라 명당이다. 그런데 명당이 중요하면 할수록 명당의 근원인 산의 중요성은 커진다. 결국 산과 명당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풍수에서는 산과 물이 만나는 곳, 즉 산이 뺏어 오다 낮아지면 그 가장 낮은 곳에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곳을 산이 물을 만나서 흐름을 멈춘 곳(山盡處)라 하고, 여기에 땅 기운이 모인다고 한다. 즉 산이 점점 낮아져 평지가 되고 또 그 평지 위에 강이 흐른다. 이때 산과 물 사이에 평지가 만들어진다. 이곳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 된다. 물을 얻기 쉽고 토지가 기름지며 자원의 확보가 가능한 곳이 바로 산과 물이 만나서 이룬 약간의 경사가 있는 평평한 땅이다. 백두산에서부터 맥을 뺏어 온 산이

1) 성동환, 「풍수 논리 속의 생태개념과 생태기술」, 『대동문화연구』 제50집, 2005, p.505.

물을 만나 우뚝 멈춰 서면서 기를 모은 곳이 바로 명당이 된다.

耳山은 고령읍기의 主山이며, 望山은 고령읍기의 안산이 된다. 가야산에서 미송산을 지나 고령읍기의 주산인 이산까지 이어지는 脈勢는 매우 빼어나다. 「1872년 지방도」에는 미송산에서 邑治의 주산인 이산으로 뻗어내린 맥세를 매우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림 1〉 '고령현지도' 읍치부분(1872년 지방도)

「해동지도」에서는 고령읍치 서쪽 미송산에서 산줄기가 동쪽으로 향해 가다가 이산에서 멈추고 명당인 읍치를 잘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있고 특히 향교까지 이어지는 용맥(龍脈)이 선명하고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풍수란 말에서 상징되듯이 물길은 명당형성의 중요한 조건이다. 명당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물길을 보는 것이 得水이다. 藏風이 기가 흩어지지 않고 잘 갈무리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면, 득수는 물을 얻어 生氣가 머

물러 모여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풍수에서는 물이 기를 머무르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 물길이 구불구불하게 흘러와서 터를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 안고 돌아나가야 기를 모을 수 있어 좋은 경우라고 본다.

고령읍기의 수세는 이산 북쪽에서 소가천과 내곡천 물이 성주 쪽에서 남류해 오는 대가천과 합류하여 읍기 앞에서 錦川을 이루고 안림천과 읍기 동남쪽에서 하



〈그림 2〉 '고령현지도' 읍기부분(해동지도)

나로 합쳐져 會川으로 흐르고 이곳에서 수구를 형성한다. 안림천과 대가천이 만나 회천으로 빠져나가는 수구 방향이 다소 虛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琴柔는 “두 줄기의 물이 남쪽을 둘러 있고, 여러 봉우리가 북쪽으로 읍하고[拱] 있다”<sup>2)</sup>고 하였고, 申檣은 “산세는 천겹으로 빼어나고, 시냇물은 한 줄기 길도다. 땅은 신령스러워 옛 館이 남아 있고, 동산은 고요하여 쓸쓸한 연못이 있네. 밭을 걷으니 대숲이 푸르고, 담장이 낮으니 보리밭이 누렁도다. 중남산이 바라보는 데 있으니, 내 고향에서 늙을 수 있으랴.”<sup>3)</sup>고 하며 고령 읍기를 높게 평가하였다.

고령읍기의 주산이 되는 이산이 동쪽으로 터를 열어놓았고 청룡과 백호의 용맥이 짧아 명당 판국을 에워싸 안음(環抱)이 부족하기는 하나 來脈이 훌륭하고 산이 그치고 물이 모이는 곳(山盡水會處)이라 명당으로서 손색이 없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9권, 경상도 고령현 형승조.

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9권, 경상도 고령현 제영조.

특이한 것은 여지도와 지승에서는 읍치 오른쪽의 지대가 낮은 하천가에는 숲이 조성되어 있고 “赤林”이라 표기되어 있는 점이다. 이 숲은 마치 청룡과 백호가 명당을 에워싸듯이 읍치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천가를 따라 조성된 숲은 청룡줄기가 짧은 것을 보완해 주는 듯하고 읍치의 안산이 되는 명당수 너머의 望山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완해 주는 風水裨補의 역할을 한다.

고령읍의 북쪽을 감싸는 적림은 대가천의 유로가 고령읍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내곡천으로부터 공급된 토사가 동쪽으로 퇴적되도록 유도하여 홍수를 방지해주고 고령읍 주변에 보다 넓은 충적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sup>4)</sup>



〈그림 3〉 「여지도」의 고령 읍치부분에 표기된 '赤林'



〈그림 4〉 「地乘」의 고령 읍치부분에 표기된 '赤林'

4) 이광률, 「『고령의 풍수사상』에 대한 토론문」, 『고령지역 사상의 특징과 사적 전개』, 고려군·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주최 제2회 고령문화사 학술대회 자료집, 2008, pp.130-131.

(2) 고령향교의 풍수지리학적 해석

고령향교는 창건 후 대략 4차례의 이건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고령향교는 가야의 궁성이었던 곳에 사찰이 들어서고 이후에 향교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702년 향교터를 닦을 때 땅속에서 옥기와, 연와기왓장, 주춧돌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sup>5)</sup> 기왕의 사찰터에 최초의 향교가 세워졌다가 몇 차례의 이건후 다시 그 자리에 설립되었거나 아니면 기왕의 사찰터에 가야관이 세워졌다가 이후 현재의 향교가 들어서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sup>6)</sup>

현재 고령향교가 들어서 있는 약간 돌출되어 솟아있는 곳에 모두 궁성, 사찰, 향교가 순차적으로 들어서지 않고 각기 조금씩 다른 자리에 입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 고령향교를 중심으로 궁성, 사찰, 향교 등이 입지한 것으로 보아 이 장소가 고령의 지리적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고령향교가 낙성되자 白鵲이 날아왔는데 이를 당시 사람들은 “지령이 화한 것(地靈所化)”으로 여기고 “옛날 가야국 건도 때 나타난 영험이 향교의 건묘 때 다시 나타난 것”으로 서로 대비시키기도 했다.<sup>7)</sup> 백작이 건물주위로 날아들어 멀리 날아가지 않자 이 상서를 보고 향교의 지기가 영험하기 때문(地氣所應)이며, 그로 인해 고령에는 문학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여기기도 했다.<sup>8)</sup>

5) 『고령향교실측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향교에 사용된 석재 중에는 사찰에서 사용한 듯한 것이 많이 보이고 향교 부근에 당간지주가 있는 것으로 보아 향교건설은 사찰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고령군·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고령향교실측조사보고서』, 1996, p.51.  
 6) 정동락, 「고령향교의 연혁과 운영기반」, 『민족문화논총』 제26집, 2002, p.316.  
 7) 白鵲當是地靈所化. 昔之出於建都時者 今又出於建廟時 與夫子廟地氣所應者果有驗. 「己卯縣學重修記」.  
 8) 吾鄉雖蕞爾多文學士往往有功今還說者爲夫子廟地氣所應云. 『高靈郡誌』鄉校條.

고령향교에서 바라보는 耳山은 貪狼星의 木星體이다. 一字文星의 巨門土星體의 산으로 보이지만 맥이 뻗어 나온 곳(出脈)이 가운데에서 뻗어 나온 것(中出)이 아닌 便脈으로 平貪狼에 속하는 木星體의 산이다.<sup>9)</sup> 주산에서 뻗어 내린 來龍은 穴場까지 이어지면서 몇 차례 剝換<sup>10)</sup>과 開帳, 그리고 過峽<sup>11)</sup>을 하면서 향교까지 잘 이어지고 있다.

대가천 너머에 위치한 望山은 고령향교의 안산이면서 곧 조산이 된다. 안산은 미인의 눈썹과 같은 蛾眉砂를 이루고 있어 귀한 砂格이다. 청룡은 비록 혈장을 완전히 감아주지는 못하지만 혈을 향하여 몇 겹으로 안아주며 혈을 보호해주고 있다. 고령향교의 내룡이 行龍과정에서 開帳<sup>12)</sup>한 능선이 내백호가 되고 주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외백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고령향교의 砂格은 혈을 여러 겹으로 감싸주고 있어 좋은 보국을 형성하고 있다. 고령향교의 穴象은 乳穴 중에서도 大乳에 해당된다. 또한 내룡의 기세가 강하여 혈을 맺고도 그 만큼 餘氣가 남아 脣髭<sup>13)</sup>이 잘 발달되어 있다. 백호와 청룡이 짧은 만큼 물의 발원은 길지 않다. 그러나 백호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길과 고령향교의 내명당에서 만나 대가천과 합수된다. 고령읍기를 감고 도는 대가천도 고령읍내에 진입하기 전에 가야산쪽에서 흘러오는 소가천과

9) 차홍도, 「傳統鄉校의 立地 및 空間構成에 대한 風水的 解析」,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64.

10) 박환이란 용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행룡중에 거칠고 조악한 기운이 부드럽고 정제된 기운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가늘었던 용맥이 두꺼워지고, 급하게 내려오다가 완만해지거나 거칠고 험준한 石山에서 점차 곱고 유연한 土山으로 바뀌는 것 등을 말한다.

11) 과협이란 산봉우리와 산봉우리를 이어주는 고개로, 가늘고 낮은 부분이다.

12) 산은 行龍 하면서 중간 중간에 수많은 산봉우리를 만든다. 이때 산봉우리 좌우에서 능선을 뻗어 中出脈을 감싸 보호해주는 모양을 開帳이라고 한다.

13) 순전은 혈 앞에 약간 두툼하게 생긴 흙덩어리로 사람의 얼굴에 비유하면 턱에 해당된다. 혈을 걸지하고 남은 餘氣가 혈 앞에 뭉쳐져 있는 것을 말한다. 순전은 혈의 생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며, 혈장을 아래에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크게 합수하여 큰 물길을 이루면서 고령읍내를 흘러간다. 이물은 맑고 흐름이 완만하고 유유히며 청룡과 백호에서 흘러내린 물이 내명당에서 만나므로 혈장에서 直去하지 않고 흘러 길격이다.<sup>14)</sup>



〈그림 5〉 고령향교와 주산 岬山



〈그림 6〉 고령향교의 안산과 蛾眉砂

14) 차홍도, 같은 논문, p.64.

## 2) 고령의 마을풍수

마을의 明堂은 아늑하고 포근하며 陽明해야 한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 좁거나 작아서는 안 된다. 명당이 작으면 농경지가 좁아지고 여러 사람들이 삶터를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없다. 마을의 경우 절터와는 달리 여러 사람들이 터를 일구고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넓은 농경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른 들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전형적인 조건이 ‘背山臨水’ 형국이 된다. 너른 들과 물길이 확보되면서 산에 기대 수 있는 지형이 좋은 삶터의 조건이 된다. 산은 아늑한 느낌을 주고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 먹을 물과 빨감을 얻을 수 있고 돌과 목재를 얻을 수 있다. 심한 바람을 막아주고 홍수의 피해를 줄여주며 죽은 후의 보금자리인 산소도 마련해 준다.

### (1) 개실마을의 풍수지리학적 해석

개실마을은 조선 중엽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영남사림학파의 종조 점필재 金宗直 후손의 세거지이다. 점필재 김종직의 5대손 남계공 김수휘가 1650년 이곳에 택리 정착하여 지형을 살피니 앞산은 蝶舞峰, 뒤산은 花開山이라 꽃피고 나비 춤추는 형국이라 하고 동명을 開花室로 명명하고 아름다운 골이라 하여 佳谷이라 불렀다. 개화실이 음이 변하여 개애실이 되고 개애실마을 중아랫 마을이라 하여 아랫개실 하가 또는 하가곡이 되었다. 舍伽里의 중심마을이며 일선 김씨들의 집성촌 마을이다.<sup>15)</sup>

개실마을은 전형적인 명당의 조건이 되는 뒤로 산에 기대고 앞으로 물을 접하고 있는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화개산에서 뺨어 내린 맥에 기대어 집들이 남향을 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둥글게 구불거리며 지나가는 물길을 마

15) 개실마을 홈페이지 <http://www.gaesil.net/intro/info02.asp>

주 하고 있다.



〈그림 7〉 개실마을 원경



〈그림 8〉 점필재 종택에서 본 안산(문필봉)

마을의 왼편으로 두 가닥의 청룡맥이 마을을 감싸고 오른편으로는 세 가닥의 백호맥이 마을을 감싼다. 마을 앞으로는 안산이 되는 접무봉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사이로 명당이 펼쳐져 있다. 안산이 되는 접무봉은 文筆峰으로 길상스럽다. 다만 접무봉이 비교적 높고 가까워 명당 국면이 다소 좁다. 명당 앞을 흘러가는 물길은 金城水로 길격이다.

풍수이론에서는 물의 흐름이 屈曲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물길이며 直沖, 峻急한 물길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sup>16)</sup> 부드럽고 유순하며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물길이 좋은 물길이며, 혈을 향해 내지르는 듯하거나 쏘는 듯이 달려드는 물길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직류하며 변화가 없는 물길은 자연성이 없으므로 굴곡을 이루며 흐르는 물길을 생기가 있는 물길로 여겼다.

풍수 고전 중의 하나인 『錦囊經』에서는 “기는 물에 닿으면 그 자리에 머무른다(氣界水則止)”고 하였다. 하천이 구불구불하게 흘러와서 터를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 안고 돌아나가면 좋은 기운을 모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마을 바로 앞을 가로질러 가는 도로는 마을을 둥글게 안으면서 지나가는 물길의 길상스러움을 반감시킨다.

풍수의 관점에서 건물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터 가운데서 생기가 집중되는 곳인 혈에 가장 중요한 건물을 앉혔다. 마을의 경우 혈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宗家나 入向祖의 집이, 일반 주택의 경우 본채가, 사찰의 경우 대웅전, 서원의 경우 강당, 향교의 경우 대성전이 자리를 잡았다. 혈 앞의 명당에

16) 『雪心賦』, 卷二, 「論水法」에서는 물길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좋고 나쁨을 표현하고 있다. “좋은 물길은 산의 양쪽에서 흘러와 함께 만나는 물길(交), 물이 나가는 곳(水口)을 막고 있는 산이나 바위가 있는 곳의 물길(鎖), 배를 짜는 것과 같이 물의 오고 감이 지현굴곡(之玄屈曲)을 이루는 물길(織), 여러 물이 흘러나와 한 곳에 모인 물길(結) 등이다. 반면에 좋지 않은 물길은 청룡이나 백호를 끊고 지나가며 명당의 기운을 파괴하는 물길(穿), 혈 앞의 명당을 깎으면서 지나가는 물길(割), 화살이 지나가는 것 같이 급하고 곧게 지나가는 물길(箭), 좌우의 옆구리를 화살이 쏘고 들어오는 듯한 물길(射) 등이다.”

는 명당에 해당되는 마당이 있었고 나머지 건축물들은 중요도에 따라 주변의 지세에 맞추어 배치되었다.

점필재 종택은 화개산의 중심맥이 뺏어 내린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점필재 종택은 본체가 높고 청룡백호에 해당되는 건물이 낮게 배치되어 있으며 앞이 낮고 뒤가 높은(前低後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건물 가운데에 마당을 두는 중정형 배치를 하고 있다. 중정형 배치는 우리 전통 건축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따뜻한 햇빛과 활발한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배치 구조는 양명한 기운을 빠져 나가지 않게 보전하는 역할도 한다. 풍수에서는 마당을 양기를 받아들이는 명당으로 여긴다. 따라서 풍수에 의해 형성되는 자연적인 지형상의 축은 그대로 건물들 사이의 조합을 결정짓는 건축적인 축이 되어 건물을 둘러싼 주위 산지의 형국과 닮은 동일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그 결과 본래 있던 자연 지세 속의 명당과 이것을 닮은 인공 조영에 의한 명당이라는 두 겹의 명당구조가 형성된다.<sup>17)</sup>

점필재 종택 안채의 안마당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안채 앞 보다는 담장 쪽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담 아래에 붙여 화단을 만들면 낮은 담 너머로 들어온 바깥 경치와 대비되는 마당안 경치를 연출할 수 있게 되며 담 하부를 비나 물로부터 보호해주면서 지반을 안정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산과 연결되는 종택의 뒤편에는 대나무숲이 울창하다. 배산임수를 하고 있는 우리네 마을의 집 뒤는 산과 접하게 되고 이곳은 자연과의 경계가 된다. 풍수에서 이상적인 주택의 배치로 여기는 전저후고의 원칙에 따라 지어진 집은 넓지 않는 산기슭을 깎아 만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사태가 날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 집 뒤에 흔히 대나무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대나무숲은 根莖이 서로 얽히고 설켜 지면을 안정화시

17) 임석재,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pp.147-148.

켜준다. 대나무가 갖고 있는 특성인 근경은 사면부 토사 유실을 방지해주는 효과적인 사방장치가 된다. 또한 집 뒤의 대나무숲은 집의 풍치를 돋우고 사면을 안정화시키며, 차가운 북풍을 차단하는 미기후 조성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효용 가치도 갖고 있다.<sup>18)</sup>

## (2) 죽유종택과 매림서원의 풍수지리학적 해석

죽유종택은 송림리 서원마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죽유 오운의 중실로 오른쪽에는 그의 사당이 있고 남동쪽에는 매림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송림재(208m) 오른쪽의 232m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용맥이 중앙으로 뻗어내려 멈춘 곳에 서원이 자리 잡았고 그 옆에 죽유종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림 9〉 송림리마을과 죽유종택 및 매림서원 원경

백호와 청룡은 주산에서 줄기가 함께 뻗어 내린 本身龍虎이다. 백호는 종택과 서원을 有情하게 감싸 안고 있다. 그러나 청룡은 종택과 서원을 감싸 안은 듯하나 끝자락이 無情하게 약간 비켜서서 달아나는 형상을 하고 있다.

18) 성종상, 「다시 현실과 전통의 틈에서—향리 일상에서 배울 만한 것들」, 『조경과 비평 LOCUS 2』, 조경문화, 2000, pp.92-93.

서원이 있는 마을 앞은 안림천이 과거에 흐리던 구하도에 해당되며 이 청룡은 백산리에서 휘돌아 송림리로 향하던 과거 안림천이 곡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식작용으로 사면이 깎여 형성된 하식에 해당된다. 종택과 서원 앞을 흐르는 물길은 松林池에서 흘러



〈그림 10〉 죽유종택과 매립서원의 청룡

러나와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청룡 끝자락을 지나 안림천과 합수된다. 현재와 같은 물길이 형성된 것은 1920년 안림천의 홍수 때문이며 옛 수로는 원래 송림리 앞을 지나 송림리의 청룡쪽에 부딪쳐 돌아가면서 흘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20년에 대홍수로 인해 안림천이 범람하면서 매호 들관과 매촌리 일부를 휩쓸었다. 이때 들관 가운데 있던 마을이 하천에 유실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천 건너편의 송림리로 대거 이주하였다.<sup>19)</sup>

청룡의 비켜감을 비보하는 숲이나 시설물 등의 흔적을 지금은 찾을 수 없었다. 송림교 부근부터 청룡자락을 따라 숲은 조성하는 것이 수구 부분의 허함과 청룡의 비켜남을 비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별지리 마을의 비보숲

별지리는 마을 뒷산인 寶劍嶺과 長嶺의 모양이 무엇을 내려 치려고 하는 칼의 형상이므로 같은 함부로 쓰지 않고 칼을 쓸 때에는 알고서 친다고 하여 한자로 칠벌(伐) 뜻지(知)라 불러 왔다고 한다.<sup>20)</sup>

19) 우인수, 「高靈 梅村鄉約의 특징과 洞民의 결속」,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2호, 2008, pp.185-186.



〈그림 11〉 벌지리 마을 밖에서 본 느티나무

벌지1리는 성주군과 경계를 이루는 243m 산에서 동으로 뺀 내린 산줄기에 기대어 남향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은 대략 해발고도 40~5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흑방지에서 흐르는 물길이 마을을 감싸 안으며 ‘벌지쉽터’에 있는 느티나무에서 방향을 돌려 둥글게 원을 그리듯 흐르면서 마을 밖으로 빠져 나간다.

벌지1리 느티나무는 벌지1리 마을 쉽터의 오른쪽 제방을 따라 50m 간격으로 3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나무의 수령은 400년 이상이 된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이 느티나무들은 마을의 입구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독을 따라 늘어선 비보숲으로 추정된다. 이 느티나무들은 마을의 입구에서부터 마을 청룡까지 이어지는데 이 마을의 동쪽이 열려있는 것을 보완해 주는 숲이다. 이 동쪽 부분에 나무가 없어 열려 있는 경우에는 마을의 안과 밖의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정감과 장소감을 제공해 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 느티나무는 허결한 동쪽을 보완해주면서 동시에 水口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풍수이론에 따르면 수구는 명당 앞을 흐르는 명당수가 합해져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말한다. 풍수에서는 수구가 좁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풍수적으로 좋은 땅이 되려면 청룡과 백호 등과 같은 명당 주위의 산들이 명당을 안고 둘러싸야 하기 때문에 명당의 왼편과 오른편의 산이 서

20) 고령군 다산면 홈페이지 [http://resion.goryeong.go.kr/다산면/village\\_01.asp?re\\_code=3401509](http://resion.goryeong.go.kr/다산면/village_01.asp?re_code=3401509)

로 감싸 안는 형국이 된다. 따라서 그 사이를 흐르는 물도 청룡과 백호가 서로 안고 있는 좁은 사이를 흐르게 된다. 이렇게 명당수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 흘러가는 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좌우의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경우에 흔히 “수구가 좁다”, “수구가 잘 짜여져 있다”, 혹은 “수구가 잘 여며져 있다(水口關鎖)”는 표현을 쓴다. 반면에 청룡과 백호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이로 물을 흐를 때는 “수구가 벌어졌다”는 표현을 쓴다.

수구가 좁게 잘 짜이면 청룡, 백호가 잘 감싸기 때문에 명당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외부로부터의 방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 반대로 수구가 벌어져 있으면 물은 그만큼 쉽게 빠져나간다. 좌우의 산들이 잘 감싸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명당이 외부에 쉽게 노출된다. 수구가 닫혀있지 못해 부득이 하게 수구막이를 하게 되는 방법 중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을숲이다. 대부분의 마을숲이 조성되는 것은 풍수적으로 虛缺함이 있는 곳을 裨補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을숲은 풍수적으로 虛한 곳을 메우거나 형국을 완성하는 裨補的 의미와 좋지 않은 기운을 차단하여 보호하는 의미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비보적인 의미는 풍수상의 땅기운을 보호하거나 땅 기운의 연결 또는 보완을 위한 것이다. 수구가 열려 마을이 황량한 들판처럼 외부에 완전히 개방되지 않도록 숲이나 담, 울타리 등의 비보책을 사용하여 마을을 개방과 폐쇄가 적절히 혼합된 공간으로 만든다. 그러면 마을은 한층 안정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조치를 취한 마을의 주민들은 장소감과 안정감을 얻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장소, 즉 닫혀진 실존적 공간을 가지게 된다.<sup>21)</sup> 마을숲은 이렇게 환경심리학적 측면에서 완충공간의 구실을 하여 거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1) 김덕현, 「유교적 가거지 '내앞' 경관독해」,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1호, 2003, pp.57-58.

수구를 닫히게 하기 위해 벌인 노력들은 양수가 쉽지 않던 시대에 농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물을 슬기롭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사에 따라 이용하는 물을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 묶어 두거나 흐름의 속도를 늦추어 물이 마을(명당) 내부에 머물 가능성을 높이고 물의 흐름을 지연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었던 산림수문학적 산지관리라 할 수 있다.<sup>22)</sup>

### 3) 고령의 사찰풍수 : 盤龍寺와 舍伽里寺址

#### (1) 반룡사의 풍수지리학적 해석

柳方善은 그의 시에서, “가야산 우뚝 솟아 하늘을 고였는데 그 밑에 보배로운 절이 있으니, 그 이름 반룡사. … 누각과 전당에 구슬이 영긴 듯 아롱지다. 땅이 신령스러워 소나무·전나무에 연기와 산아지랭이가 서려 있고, 흐르는 물, 돌 씻는 소리 팔팔거린다. 일천 봉우리 일만 골짜기에 경치 좋은 곳이 많으므로, 사시의 장관이 유달리 무궁하다.”고 반룡사를 극찬하였다.<sup>23)</sup>

반룡사는 미송산에서 불당산(459m)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행룡하다가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맥이 대적광전의 입수맥이 되며, 426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맥이 지장전과 약사전 영역의 입수맥이 된다.

반룡사의 백호는 안산이 되며 남동쪽의 303m 능선이 청룡줄기가 된다. 물길은 대적광전과 지장전 사이에서 흘러내린 물이 저수지로 흘러들고 저수지를 거쳐 남동쪽의 용지골로 물길이 빠져나간다.

백호와 청룡의 짜임새가 좋아 국세가 안정되어 있어 사찰의 장소감을 높여준다. 백호가 청룡의 기세보다 좋아 사찰 주위를 잘 에워싸고 있으나 청룡은 용2리로 뻗어 내려가면서 사찰을 잘 에워싸지 못해 청룡이 약간 허(虛)하

22) 이도원, 『한국 옛 경관 속의 생태지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63-65.

23) 『신증동국여지승람』29권 고령현 불우조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보책으로 약사전 왼편에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고 수령이 오래된 커다란 나무가 청룡자락을 비보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반룡사에는 대숲이 잘 조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절에 대숲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朴孝修는 그의 시에서, “울타리 밑에는 들국화가 많고, 밭에는 苜蓿이 나 있구나. 땅에 따라 물건에 귀천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이 祇園의 대나무라. … 달빛이 스며드니 그림자 금빛으로 부서지고, 바람이 흐르니 그 소리 옥이 부딪치는 듯, 화사하긴 姚紅을 웃는 듯, 곧은 모습은 淇水의 푸름인 양 아리따구나. 삼엄하기는 일만 武夫가 갑옷을 입고 준비하게 창과 깃발을 세워 놓은 듯하다. 살은 없고 오직 뼈마디뿐, 어찌 十圍木에 비기랴. 내 평생에 [此君(대나무)]을



〈그림 12〉 반룡사 원경(대적광전 영역)



〈그림 13〉 대적광전 영역에서 본 案對



〈그림 14〉 약사전 영역에서 본 案對

사랑하여, 두어 떨기 초가집을 둘러 있노라.”고 하였다.<sup>24)</sup>

대적광전에서 전면을 향해 바라보면 호쾌한 案對를 접할 수 있는데 청룡과 백호사이로 멀리 산줄기들이 장쾌하게 이어지는 경관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먼 곳을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면서 아래에서 쳐다보면 장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또한 산의 경사진 곳을 다듬어 석축을 정교하게 쌓고 여기에 마련된 공간 위에 지장전과 약사전 등의 건물을 조성하였다. 지장전과 약사전으로 이르는 동안 경사진 계단을 오르게 되고 중심축을 향해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의 위계가 높아지도록 하여 경사지를 오르는 동안 수직적 상승효과를 자아내게 하는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 (2) 합가리사지의 풍수지리학적 해석



〈그림 15〉 합가리사지 추정지

합가리사지는 한절골이라 불리는 골짜기 제일 안쪽에 있다. 저수지를 거쳐 좁은 골짜기를 지나면 비교적 작은 사찰이 들어설만한 터가 나타난다. 현재 절터에는 歸源寺라는 작은 암자가 있고 주위로 2동 정도의 살림집 건물이 있다.

이곳은 국세가 그리 크지 않아 큰 규모의 사찰이 자리 잡을 만한 터는 아니며 암자 정도의 작은 규모의 사찰이 들어서기 적합한 터로 판단된다. 낮은 산들이 이 터 사방을 에워싸고 있고 동쪽으로부터 트여 있고 고립된 장소감을

24) 『신증동국여지승람』 29권 고령현 불우조.

느끼게 해주며 수행이나 기도처로 적절한 터이다.

현재 작은 규모의 암자와 조립식 주택이 있는 곳은 남향을 하고 있으며 골짜기의 제일 안쪽이다. 도난 되기 전의 미륵불이 봉안되어 있던 자리는 암자와 조립식주택 맞은편에 있으며 동향하고 있다.

10여 년 전에 “절터 주위로 10여 동의 건물로 추정되는 기단의 석축과 건물의 대지가 남아 있으며 초석재, 외편들이 상당히 산재하여 있다. 사지 내에는 석불 2구가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의 민간신앙적 요소가 강하게 결부된 미륵불로 보이며 석불은 둘레가 10m 내외인 사각 담장 안의 편평한 판상 석 위에 모셔져 있고 큰 석불은 좌대 위에 작은 석불은 바다에 모셔져 있다”<sup>25)</sup>고 하였으나 현재는 그 흔적들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또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1998년 도난당하여 현재는 부처 모양의 돌을 미륵불 대신 모시고 있다고 한다.

풍수 고전인 『雪心賦』에서는 “뭇 산들이 머무는 곳에 진정한 穴이 있으며, 뭇 물들이 머무는 곳에 진정한 명당이 형성된다(衆山止處是真穴, 衆水聚處是明堂)”고 하였는데 한절골의 합가리사지는 주위의 산들이 낮지만 서로 모이고 그 사이로 많은 물들이 모여 산과 물의 짜임새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종교적인 장소성을 잘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

### 3. 고령지역 陰宅풍수의 해석

음택의 풍수지리학적 조건을 살피는 것은 양택의 풍수지리학적 조건을 살피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국면의 넓음과 좁음, 거주하는 삶의 공간으

25) 문화재관리국·경상북도고령군·계명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1997, p.62.

로서의 유의성 등을 따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풍수적인 조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풍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되었는지를 살펴려면, 산줄기의 흐름을 알아야 하며(龍論), 산줄기에서 맥이 잘 뻗어내린 곳에 혈과 명당이 형성되려면, 혈 주위의 산들이 다정하게 안아주어야 하는데, 이 혈 주위의 산들이 어떻게 놓여있는지(砂論)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줄기에서 뻗어 내린 물줄기들이 어디에서 흘러와서 어떻게 흘러가며, 혈과 명당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水論)를 또한 살펴야 한다. 龍과 砂와 水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하나의 穴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고 혈의 역량이 어떠한지, 약점이 무엇인지, 혈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이며, 혈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리고 혈이 맺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요건들을 살피는(穴論)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혈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려면, 용, 혈, 사, 수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1) 金沔 묘의 풍수지리학적 해석

김면 묘는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26번지 김면장군유적지(기념물 제76호) 안에 있다.

김면(1541~1593)은 한강 정구 등과 막역한 교분을 가졌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령과 거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활동의 공으로 합천군수가 되고 선조 26년(1593)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충청, 전라도 의병과 함께 적을 격퇴시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병사하였다. 선조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병조판서를 추증하였다. 선조 40년(1607)에 다시 선무공신에 기록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송암실기』가 있으며, 김면장군유적지에는 그의 무덤과 신도비, 道巖書院 등이 있다.

김면 묘소의 주룡은 백두대간의 대덕산(1291m)에서 分枝하여 국사봉—수도산—두리봉(1133m)—가야산(1433m)—북두산을 거쳐 미숭산(755m)을 일으킨다. 미숭산에서 다시 분지하여 주산(310m)을 기봉하기 위해 동쪽으로 행룡하던 주룡은 412m봉에서 남



〈그림 16〉 金沔 묘

쪽으로 방향을 틀어 339m봉과 306m봉을 차례로 일으키고 김면의 묘소 뒤에서 다시 金星體의 166m봉우리를 일으킨다. 166m봉우리가 이곳의 주산이며 玄武峰<sup>26)</sup>이다. 166m봉에서 穿心한 주룡은 좌우로 굽어지며 힘 있게 내려와 結咽束氣한 후 곧 바로 入首하여 두툼한 大乳의 穴場을 만들었다.

혈장을 중심으로 四神砂를 살펴보면 단정하고 유정한 주산은 마치 미인의 눈썹처럼 생긴 金星體의 蛾眉砂로 길격의 형상이다.

案山은 166m봉인 주산에서 개장하여 玉帶砂<sup>27)</sup>로 내청룡을 이루며 뺨은 청룡끝자락이다. 안산 뒤의 朝山은 306m봉에서 뺨어 내린 연맥으로 외청룡을 이루며 내청룡과 안산을 겹쳐 감싼다.

내청룡과 내백호는 주산에서 개장한 本身龍虎로 혈장의 높이에 맞게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높이로 내백호를 내청룡이 겹쳐 감싸는 아주 길격의 내용호이다. 특히 내청룡은 옥대사를 이루며 길게 뺨어 안산까지 이른다. 외청

26) 혈과 가깝게 바로 혈장 부근에서 주산으로부터 내려오는 來龍이 우뚝 솟은 곳을 현무정이라 한다.

27) 좌우 양쪽으로 퍼진 초생달이나 눈썹 모양을 한 산을 玉帶砂, 혹은 蛾眉砂라 한다. 산 아래쪽에 물이 없는 경우는 옥대사라 하고 산 아래쪽에 물이 있으면 여인의 눈썹 모양 같다 하여 아미사라 한다. 砂格에서 옥대사나 아미사는 모두 귀하게 여긴다.

룡과 외백호는 306m봉에서 뺨어 내린 연맥으로 여러 겹으로 내용호를 감싸 안고 있어 허결한 곳을 찾을 수 없는 藏風局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이곳 명당수는 청룡자락에서 득수한 물이 혈장을 환포하며 흐르다 백호자락에서 득수한 물과 合水하여 초입의 외백호 끝자락으로 빠져나간다. 용호의 끝자락이 모두 겹쳐 감싸므로 인해 물 흐름은 자연히 지현구곡수가 되었고 水口가 잘 關鎖되었다. 좌향은 亥坐巳向이다.

## 2) 高靈申氏 시조묘의 풍수지리학적 해석

고령신씨 시조묘는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에 있다.



〈그림 17〉 高靈申氏 시조묘

고령신씨 시조묘소는 산정상부 능선을 따라 용맥이 가파르게 뺨어 내리다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해지는 곳에 자리 잡았다. 입수의 형태는 直龍入首이다. 직룡입수란 현무봉의 중심에서 출맥한 용이 굴곡하면서 내려오다가 입

수할 때 入首倒頭<sup>28)</sup> 한가운데로 직선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말하며 용의 기세가 강성하고 웅대하다.

주변의 사격은 전체적으로 穴을 잘 감싸고 있으나 백호는 청룡에 비해 그 기세가 훨씬 강하다. 청룡은 혈장에 비해 다소 낮은데 반해 백호는 혈장보다 높아 혈을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백호가 낮아지면서 안산을 형성하고 혈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다. 내명당은 좁으나 안정된 保局을 이루고 있고 안산 밖의 외명당은 넓고 활달하다. 백호 바깥의 양명한 산은 귀인봉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소 비켜선 듯한 형세를 취하고 있다. 혈상은 乳穴이며 膺氈이 잘 발달되어 있다.

오른쪽에서 흐른 물길은 穴場을 감싸 안고 흐르다가 왼쪽에서 흐르는 물길과 만나 백호자락을 따라 흘러간다. 수구가 잘 여며져 있어 혈장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모양이 보이지 않아 좋은 물길로 판단된다. 물길이 빠져나가는 곳에 형성된 연못은 혈장의 기운을 누설시키지 않고 여며주는 역할을 한다. 좌향은 酉坐卯向이다.

### 3) 박지 묘의 풍수지리학적 해석

박지 묘는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새미실) 241 萬南齋(유형문화재 제48호) 뒷산에 자리잡고 있다. 박지의 묘는 고령 박씨의 중시조인 淸河公의 묘이다. 1728년(영조 4)에 朴持의 11대손이자 조선 후기 문신이며 병조판서 및 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朴文秀(1691~1756)가 글을 지었고, 그의 10대손인 比安縣監 朴舒漢이 글씨를 쓴 박지의 묘비에 따르면, “고령 南面의 萬代山에 있는 戌坐의 자리에 공의 장례를 지냈으며, 恭人也 같은 자리에 봉분을 달리하여 附左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9)</sup> 또한 박문수 자신이 조상의 음덕

28) 입수도두(入首倒頭)는 혈 뒤의 볼록한 부분으로 산천정기가 모이는 곳으로 사람으로 치면 이마에 해당된다.

으로 경상도 안찰사가 되어 조상의 분묘를 중수함에 비문을 새로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sup>30)</sup>



〈그림 18〉 朴持 묘

박지 묘소의 주룡은 백두대간의 대덕산(1291m)에서 分枝한 수도지맥으로 국사봉(875m)－수도산(1317m)－두리봉(1133m)－마령－비계산－두무산－오도산－토곡산(644m)－만대산(688m)－노태산－지릿재－시리봉(408m)－장승재－기미재를 거쳐 솜등산(260m)을 起峰한다. 솜등산에서 다시 行룡하는 주룡은 안산(247m)－만산(267m)을 거쳐 동서로 길게 뻗은

29) 公葬于高靈南面萬代山戌坐之原恭人祔同原異塋. 『清河縣監朴公持墓』

30) “文秀는 다행히도 先祖의 蔭德 덕택에 외람되이 勳臣의 封爵을 받고 갑자기 公卿의 반열에 뛰어올랐으며, 또 삼가 慶尙道를 按察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先塋을 掃墳하게 되었으니, 그 어느 것도 先祖께서 남겨놓으신 경사慶事의 所致가 아님이 없다.”고 하고 새 비갈을 옛 비갈의 왼쪽에 나란히 세우고 비석 한 개를 묘소 앞의 길 왼쪽에 세우고 “크게 쓰기를 ‘고령의 만대산은 박씨 조상의 묘소이다[高靈萬代山朴氏祖地]’ 하였고, 거기에 注釋을 달기를 ‘묘소는 戌方으로 250보 되는 곳에 있다. 천년 뒤의 사람들로 하여금 公의 衣冠과 신발이 여기에 묻혀 있음을 알게 하노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清河縣監朴公持墓』

祿存土星體의 세도끼산(동봉, 서봉 모두 293m)을 일으키는데 박지 묘의 주산이다. 세도끼산의 동봉에서 穿心한 주룡은 起伏屈曲을 하면서 힘 있게 내려와 結咽束氣를 한 후 入首하여 倒頭를 만들고 그 맥 위에 작은 乳形의 穴場을 만들었다.

박지 묘의 사신사를 살펴보면, 장막을 치듯 길게 뻗은 祿存土星體(산 정상이 평평하나 方正하지 않고 枝脚이 많으며 약간 둥근모양이다)의 주산은 맑고 밝으며 有情하고, 청룡, 백호에 대해 주인으로서의 위치에 합당하게 적당히 높다. 손님격인 朝山에 대해서도 주인의 위치로서 서로 비등하게 품격이 어울려 길격이다.

내청룡과 내백호는 주산에서 개장한 本身龍虎로 혈장의 높이에 맞게 적당한 높이로 혈장을 유정하고 周密하게 잘 감싸는 형세이며 외청룡과 외백호 또한 여러 겹으로 내용호를 감싸주어 길격이다.

案山은 만산에서 뻗어 내린 외백호의 끝자락인데 유정하지만 혈장에 비해 조금 낮고 뚜렷하지가 않다. 조산(朝山)은 중중첩첩으로 가로로 길게 늘어서서 羅城<sup>31)</sup>을 이루며 먼 곳에서부터 혈장쪽으로 와서 엮드려 절하는 모습이므로 길격이다.

박지 묘의 명당수는 백호자락에서 득수한 물이 혈장을 감싸 안으며(環抱) 흐르다 청룡자락에서 득수한 물과 합수하여 내청룡 끝자락인 만남재가 위치한 곳으로 빠져나간다. 용호의 끝자락이 모두 혈장을 향해 겹쳐 감싸므로 인해 지현구곡수로 길한 물 흐름이고 수구가 잘 關鎖되었다. 좌향은 戌坐辰向이다.

31) 혈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에서 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산을 羅城이라고 한다. 혈에서 멀리 있는 산들은 그 모습이 마치 성곽을 두른 것처럼 둥글게 이어졌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4. 맺음말

풍수사상이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나타난 지리관이 산업화된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상이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산업화된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범람할지라도 사람은 땅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땅 위에서 삶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산업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기 때문에 풍수사상의 공간관에서 현대적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슬기롭게 적용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풍수사상의 논리에는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는 생태적인 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풍수사상에 기반한 수구 비보나 숲을 통한 비보, 건물의 공간구성과 배치 등은 훌륭한 생태지혜를 담고 있으며 현대에도 발전시켜 적용시킬 수 있는 생태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명당을 형성시키기 위해 산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성을 갖게 하거나 숲을 가꾸어왔던 것은 생태적으로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생물과 물질의 이동을 도와서 생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 깔려있는 풍수적 정서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실천을 일깨울 수 있다. 자신이 만든 공간에 풍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삶터를 명당으로 가꾸고 유지하려했던 선인들의 노력 속에 담겨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찾아내고 재구성하는 것은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고 향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땅과 생명력을 그르치지 않고 온전히 보전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했던 풍수사상에 기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오늘 풍수사상을 다시 되돌아보는 의미가 될 수 있겠다.

고령군 지역의 양택과 음택을 풍수지리학적으로 해석한 이 글은 고령지역

의 양택과 음택 중에서 한정된 사례를 분석한 기초적인 조사이므로 많은 한계가 있다. 고령지역의 더 많은 사례를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錦囊經』, 『雪心賦』, 『1872년 지방도』, 『해동지도』, 『여지도』, 『地乘』,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령군·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고령향교실측조사보고서』, 1996.

고령군, 『고령군지』, 1996.

고령군·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고령지역 사상의 특징과 사적 전개』, 제2회 고령문  
화사 학술대회, 2008.

문화재관리국·경상북도고령군·계명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고령군』, 1997.

이도원, 『한국 옛 경관 속의 생태지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임석재,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김덕현, 「유교적 가거지 '내앞' 경관독해」,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1호, 2003.

성동환, 「풍수 논리 속의 생태개념과 생태기술」, 『대동문화연구』제50집, 2005.

성종상, 「다시 현실과 전통의 틈에서—향리 일상에서 배울 만한 것들」, 『조경과 비평  
LOCUS 2』, 조경문화, 2000.

우인수, 「高靈 梅村鄉約의 특징과 洞民의 결속」,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2호, 2008.

정동락, 「고령향교의 연혁과 운영기반」, 『민족문화논총』 제26집, 2002.

차홍도, 「傳統鄉校의 立地 및 空間構成에 대한 風水的 解析」,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4.

개실마을 홈페이지 <http://www.gaesil.net/intro/info02.asp>

고령군 다산면 홈페이지 [http://resion.goryeong.go.kr/다산면/village\\_01.asp?  
re\\_code=3401509](http://resion.goryeong.go.kr/다산면/village_01.asp?re_code=3401509)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Feng-shui(風水) in Koryoung(高靈)

Sung, Dong-Hwan

Feng-shui is a traditional geographic thought in Korea. In traditional Korea, all structures and all site planning were influenced by considerations of feng-shui.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feng-shui in order to understand Korean landscape and cultural geograph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characteristics of feng-shui in Koryoung County in Kyungbuk Province. Generally, feng-shui theory is divided into two aspects, the tomb feng-shui(feng-shui for the dead) and the living space feng-shui(feng-shui for the living). The basic feng-shui theory includes mountains, the auspicious spot, the surrounding mountains and the watercourse, and so on.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feng-shui Koryoung area in both sides.

In this study,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village, temple, Confucian public school, memorial hall for Confucianist services, tombs were investigated through basic feng-shui theory.

Key Word

Koryoung(高靈), Feng-shui(風水), Yang-taek(陽宅 : feng-shui for the living), Yeum-taek(陰宅 : feng-shui for the dead)

- 논문투고일 : 2008.6.2. 심사시작일 : 2008.6.13. 심사완료일 : 2008.6.20.